

(2) 대기, 지구온난화, 사막화

사례1. 그린서울 환경교실 - 고등학생, 5일+1박2일(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)

- 딱딱하고 어렵고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여서 실험이나 놀이방법을 많이 택함. 대기오염의 경로와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체르노빌 지도그리기, 이산화탄소 반사활동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게임,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질 측정, 토론활동을 통하여 전지구적 과제인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다.

프로그램 일정

1일, 대기오염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/ 환경과 나 / 대기오염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/ 체르노빌 지도그리기

2일, 지구온난화 누구의 문제인가? / 누구의 문제인가? (강의 및 토론) / 지구온난화 게임

3일, 우리 마을의 공기 / 우리지역 대기모니터링 - 가로수, 공원, 도로 등 주변 환경 모니터링 및 대기질 측정(NOx) 실험

4일, 대기오염, 우리의 해결책은? / 대기오염에 관한 모의 공청회 - 토론(역할극)

5일, 우리들의 생각 / 환경기사 스크랩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. 우리들의 생각

[캠프] 청소년 대기캠프 "푸른 하늘 은하수는 어디 갔을까?" - 중고등학생, 1박 2일

<주요 프로그램> 광화문 자동차 시대 - 길거리 모니터링, 대기 질 측정 / 도심 가로수 어떻게 지내나? - 가로수 관찰,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 / 에너지 이야기- 태양열 vs 원자력 / 대기오염과 숲 - 숲의 역할, 숲 가꾸기 / 별자리 관찰, 삼림욕 / 토론, 느낌 정리

사례2. 사막화 방지를 위한 '중국으로 가는 생명의 바람' <사막화방지를 위한 한·중 환경교육 및 교류사업> - 대학생, 5박 6일, 중국 길림성 서북부 사막화 지역 일대(환경연합 국토보전팀)

- 한국과 중국의 청년 21명은 중국 길림성 임업청과 흥로기업,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년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길림성 서북부 사막화지역의 초지조성 현장을 방문하고 사막화 복원의 현황들을 직접 둘러보았다.

- 지역적인 환경문제가 곧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임을 인식하고, 향후 사막화 방지에 대한 한·중 대학생의 역할이 무엇인지, 각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.

(3) 습지와 새

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들의 서식지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, 국가적인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. 습지와 새는 국제이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.

사례1. 저어새 작은학교 '저어새가 어떤 새예요?' -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, 학교당 1주(환경운동연합 습지해양팀,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)

- 세계적으로 1,400여 마리 밖에 남아있지 않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저어새(Black-faced Spoonbill)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수도권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어새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태를 알리는 저어새 작은학교 '저어새가 어떤 새예요?' 2년째 진행. 한반도 서남해안 강 하구와 갯벌생태계 그리고 남북한과 동아시아 생태계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.